

서술형 과제 (2주차)

최규형

1. 다음과 같이 스케줄링 정책이 적용되어 있는 **General Purpose** 운영체제가 있습니다. 다음 정책이 실제 어떻게 동작할지를 가능한 상세히 기술해주세요.

- Round Robin 스케줄링 정책
 - 100ms 마다 다음 프로세스로 교체
 - Ready Queue, Running Queue, Block Queue 존재
 - 각 Queue 는 FIFO 정책으로 동작함
- 인터럽트로 선점 가능 (선점형 스케줄링 기능 지원)
- 타이머 인터럽트를 지원하며, 타이머 칩에서는 1ms 마다 인터럽트를 발생시킴
- CPU만 실행하는 A, B, C 프로세스가 Ready Queue 에 기술한 순서대로 들어간 상태임
 - 각 프로세스가 총 실행해야 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음
 - A 는 200ms, B 는 500ms, C 는 300ms

➡ 위에서 기술한 사항 외에 추가 가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각자 가정한 상황을 기술하고, 동작 방식을 기술하세요.

Round Robin, 작업단위 = 100ms

Ready-Running-Block Queue (All FIFO)

*프로세스 **B**의 3번째 작업단위 실행 도중 (50ms) 시스템 콜 인터럽트 명령을 **CPU**가 실행한다고 가정

1. Ready Queue의 첫번째 원소 Process A -> Running State Queue 전환
 - a. Process A 1작업단위(100ms)만큼 실행
 - b. 1작업단위(100ms)에 해당하는 프로세스A가 Ready Queue에 세번째 원소로 생성
 - c. A 잔여 작업량 = 100ms
2. Ready Queue의 첫번째 원소인 Process B -> Running State Queue 전환
 - a. Process B 1작업단위(100ms)만큼 실행
 - b. 1작업단위(100ms)에 해당하는 프로세스B가 Ready Queue에 세번째 원소로 생성
 - c. B 잔여 작업량 = 400ms
3. Ready Queue의 첫번째 원소인 Process C -> Running State Queue 전환
 - a. Process C 1작업단위(100ms)만큼 실행
 - b. 1작업단위(100ms)에 해당하는 프로세스C가 Ready Queue에 세번째 원소로 생성
 - c. C 잔여 작업량 = 200ms
4. Ready Queue의 첫번째 원소인 Process A -> Running State Queue 전환
 - a. Process A 1작업단위(100ms)만큼 실행
 - b. **Process A**는 모두 실행되었으므로 **Ready Queue**에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음
 - c. **A** 잔여 작업량 = 0ms
5. Ready Queue의 첫번째 원소인 Process B -> Running State Queue 전환
 - a. Process B 1작업단위(100ms)만큼 실행

- b. 1작업단위(100ms)에 해당하는 프로세스B가 Ready Queue에 2번째 원소로 생성
 - c. B 잔여 작업량 = 300ms
- 6. Ready Queue 첫번째 원소인 Process C -> Running State Queue 전환
 - a. Process C, 1작업단위(100ms) 만큼 실행
 - b. 1작업단위(100ms)에 해당하는 프로세스C가 Ready Queue에 2번째 원소로 생성
 - c. C 잔여 작업량 = 100ms
- 7. Ready Queue의 첫번째 원소인 Process B > Running State Queue 전환
 - a. Process B 0.5작업단위(50ms)만큼 실행
 - b. 시스템 콜 인터럽트
 - i. Process B 실행 중단
 - 1. (Process B) Running State Queue -> Ready State Queue
 - ii. eax 레지스터에 시스템 콜 번호 input
 - iii. ebx 레지스터에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인자값 input
 - iv.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명령 호출하면서 CPU opcode 0x80(인터럽트 번호) 넘겨줌
 - v. CPU는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전환
 - vi. IDT(Interrupt Descriptor Table)에서 0x80에 해당하는 주소(함수)를 찾아 실행
 - 1. 컴퓨터 부팅시 운영체제가 인터럽트 각각의 번호와 실행 코드를 가리키는 주소를 IDT에 기록
 - 2. 운영체제 내부 코드이므로 현재 사용자 모드라면 커널 모드로 전환 필요함
 - vii. system_call() 함수의 eax로부터 시스템 콜 번호를 찾아, 해당 번호에 맞는 시스템 콜 함수로 이동
 - viii. 해당 시스템 콜 함수를 실행
 - ix. CPU는 커널 모드에서 사용자 모드로 복귀
 - x. Process B 재실행
 - 1. (Process B) Ready State Queue -> Running State Queue
 - c. Process B 0.5작업단위(50ms) 만큼 실행
 - d. 1작업단위(100ms)에 해당하는 프로세스B가 Ready Queue에 2번째 원소로 생성
 - e. B 잔여 작업량 = 200ms
- 8. Ready Queue 첫번째 원소인 Process C > Running State Queue 전환
 - a. Process C, 1작업단위(100ms) 만큼 실행
 - b. **Process C**는 모두 실행되었으므로 **Ready Queue**에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음
 - c. **C 잔여 작업량 = 0ms**
- 9. Ready Queue의 첫번째 원소인 Process B -> Running State Queue 전환
 - a. Process B 1작업단위(100ms)만큼 실행
 - b. 1작업단위(100ms)에 해당하는 프로세스B가 Ready Queue에 1번째 원소로 생성
 - c. B 잔여 작업량 = 100ms
- 10. Ready Queue의 첫번째 원소인 Process B -> Running State Queue 전환
 - a. Process B 1작업단위(100ms)만큼 실행
 - b. **Process B**는 모두 실행되었으므로 **Ready Queue**에 더 이상 생성되지 않음
 - c. **B 잔여 작업량 = 0ms**

2. 다음과 같이 메모리 정책이 적용되어 있는 **General Purpose** 운영체제가 있습니다. 다음 정책이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할지를 가능한 상세히 기술해주세요.

- 페이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가상 메모리 시스템 지원
- 요구 페이징을 지원하며, 하드웨어에서는 MMU와 TLB 칩을 지원함

➡ 위에서 기술한 상황에서 특정 프로세스가 실행 후, CPU 상에서 가상 주소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할때, 이 동작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가능한 상세히 기술해주세요

1. 프로세스 생성 시 페이지 테이블 정보가 생성됨
 - a. 물리 메모리에 테이블 정보가 올라감 (적재)
2. PCB는 해당 페이지 테이블의 **base address**를 갖고 있으며, 이를 통해 테이블 접근 가능
3. 프로세스 구동 시, 해당 페이지 테이블의 **base address**가 CR3 레지스터에 저장
4. CPU가 가상 주소에 접근을 시도하면
 - a. MMU 하드웨어 장치가 페이지 테이블 **base address**에 접근
 - i. 페이지 테이블에는 가상 주소와 물리 주소 간 매핑 정보가 담겨 있음
 - ii. 가상 주소 $v = (p, d)$
 1. p = 가상 메모리 페이지 번호
 2. d = p 안에서 참조하는 위치 = 변위(offset)
 - b. 가상 주소를 물리 주소로 변환
 - i. (1) CPU가 접근 시도하는 가상 주소가 포함된 **page number**가 프로세스의 페이지 테이블에 존재하는지 확인
 - ii. (2) **page number**가 존재하면, 해당 페이지가 매핑된 첫번째 물리 주소 p' 를 찾아냄
 - iii. (3) $p' + d$ 연산을 통하여 실제 물리 주소값을 획득
 - c. 획득한 물리 주소를 CPU에 전달

3. 다음과 같은 운영체제가 설치된 컴퓨터가 있을 때, 사용자가 컴퓨터를 켜올 때부터,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실행하고 쉘을 실행할 때까지 어떻게 동작할지를 가능한 상세히 기술해주세요.

- 컴퓨터는 BIOS를 지원하고, 부팅을 지원하는 **bootstrap loader** 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
- 운영체제 커널은 실행후, 최초 프로세스(init)를 운영체제 코드상에서 바로 실행시키며,
- 이후에는 **fork()** 기능을 지원하며, 쉘 프로그램을 실행시킴
- 쉘 프로그램을 통해 사용자는 각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음

➡ 위에서 기술한 사항 외에 추가 가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각자 가정한 상황을 기술하고, 동작 방식을 기술하세요.

1. 사용자가 컴퓨터 전원을 켜
2. BIOS가 컴퓨터 하드웨어를 초기화
3. BIOS가 저장매체 맨 앞단의 특정 **size**에 해당하는 부분(=MBR)으로부터 부트 로더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불러온다
 - a. 이 과정에서 **MBR**의 파티션 테이블로부터 어떤 파티션이 운영체제가 있는 파티션(=메인 파티션)인지를 식별, 확인
4. 부트 로더 프로그램 실행
 - a. 메인 파티션의 부트섹터에 접근하여 부트 코드를 불러와 메모리에 불러온다
5. 부트 코드 실행
 - a. 메인 파티션의 운영체제 커널 이미지(운영체제 실행파일)의 주소를 알아낸다
 - b. 주소값으로부터 운영체제 커널 이미지(운영체제 실행파일)를 메모리에 불러온다
 - c. 운영체제 커널 이미지의 가장 앞 부분으로 **PC(Program Counter)**를 옮긴다
6. 운영체제 커널 이미지 실행
 - a. 최초 프로세스(**init**)을 운영체제 코드상에서 즉시 실행
 - b. 셸 프로그램 실행
 - i. 새로운 사용자 요청이 올 때마다 **fork()** 시스템콜 호출
 - ii. **fork()** 함수를 통해 기존(부모) 프로세스로부터 새로운(자식) 프로세스 생성 -> 각 사용자 요청에 즉시 대응
 - iii. 여러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한 **IPC(Inter Process Communication)** 기법 적용

4. 다음과 같은 **General Purpose** 운영체제에서, 사용자가 커맨드창을 오픈한 후, **ls (dir)** 커맨드를 키보드로 작성할 때, 실제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가능한 상세히 기술해주세요

- 사용자가 커맨드창을 오픈하면, 자동으로 셸프로그램이 실행됨
- **ls** 명령은 윈도우의 **dir** 과 마찬가지로 해당 디렉토리의 정보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임
- 해당 셸에서는 키보드를 입력하면, 해당 키보드 문자가 화면에 표시하며, 엔터를 누르면 그동안 입력받은 문자열을 명령으로 인식하고, 해당 명령을 실행함
- 스케줄링 방식은 선점형을 지원하며, 기본적으로 멀티 태스킹을 지원함
- 인터럽트를 지원하며, 키보드 인터럽트와 타이머 인터럽트를 지원함
- 타이머 인터럽트는 **1ms** 마다 발생함
- 사용자는 키보드로 **l** 과 **s** 그리고 엔터키를 누를 때 각기 인터럽트가 발생함
- **ls** 프로그램이 실행되면, 내부적으로 필요시 시스템콜을 호출할 수 있음

➡ 위에서 기술한 사항 외에 추가 가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각자 가정한 상황을 기술하고, 동작 방식을 기술하세요.

1. 사용자 커맨드창 오픈
2. 사용자 키보드 l 입력
 - a. 키보드(하드웨어) 인터럽트 발생
 - b. **eax** 레지스터에 시스템 콜 번호 **input**

- c. **ebx** 레지스터에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인자값 **input**
 - d.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명령 호출하면서 **CPU opcode 0x80**(인터럽트 번호) 넘겨줌
 - e. **CPU**는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전환
 - f. **IDT(Interrupt Descriptor Table)**에서 **0x80**에 해당하는 주소(함수)를 찾아 실행
 - i. 컴퓨터 부팅시 운영체제가 인터럽트 각각의 번호와 실행 코드를 가리키는 주소를 **IDT**에 기록
 - ii. 운영체제 내부 코드이므로 현재 사용자 모드라면 커널 모드로 전환 필요함
 - g. **system_call()** 함수의 **eax**로부터 시스템 콜 번호를 찾아, 해당 번호에 맞는 시스템 콜 함수로 이동
 - h. 해당 시스템 콜 함수를 실행
 - i. **CPU**는 커널 모드에서 사용자 모드로 복귀
 - j. 해당 키보드 문자를 화면에 표시
3. 사용자 키보드 **s** 입력
- a. 키보드(하드웨어) 인터럽트 발생
 - b. **eax** 레지스터에 시스템 콜 번호 **input**
 - c. **ebx** 레지스터에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인자값 **input**
 - d.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명령 호출하면서 **CPU opcode 0x80**(인터럽트 번호) 넘겨줌
 - e. **CPU**는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전환
 - f. **IDT(Interrupt Descriptor Table)**에서 **0x80**에 해당하는 주소(함수)를 찾아 실행
 - i. 컴퓨터 부팅시 운영체제가 인터럽트 각각의 번호와 실행 코드를 가리키는 주소를 **IDT**에 기록
 - ii. 운영체제 내부 코드이므로 현재 사용자 모드라면 커널 모드로 전환 필요함
 - g. **system_call()** 함수의 **eax**로부터 시스템 콜 번호를 찾아, 해당 번호에 맞는 시스템 콜 함수로 이동
 - h. 해당 시스템 콜 함수를 실행
 - i. **CPU**는 커널 모드에서 사용자 모드로 복귀
 - j. 해당 키보드 문자를 화면에 표시
4. 사용자 키보드 **enter** 입력
- a. 키보드(하드웨어) 인터럽트 발생
 - b. **eax** 레지스터에 시스템 콜 번호 **input**
 - c. **ebx** 레지스터에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인자값 **input**
 - d.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명령 호출하면서 **CPU opcode 0x80**(인터럽트 번호) 넘겨줌
 - e. **CPU**는 사용자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전환
 - f. **IDT(Interrupt Descriptor Table)**에서 **0x80**에 해당하는 주소(함수)를 찾아 실행
 - i. 컴퓨터 부팅시 운영체제가 인터럽트 각각의 번호와 실행 코드를 가리키는 주소를 **IDT**에 기록
 - ii. 운영체제 내부 코드이므로 현재 사용자 모드라면 커널 모드로 전환 필요함
 - g. **system_call()** 함수의 **eax**로부터 시스템 콜 번호를 찾아, 해당 번호에 맞는 시스템 콜 함수로 이동
 - h. 해당 시스템 콜 함수를 실행
 - i. **CPU**는 커널 모드에서 사용자 모드로 복귀
 - j. 현재까지 입력된 **ls** 문자열을 명령으로 인식

k. 현재 디렉토리의 정보를 보여주는 함수를 실행